

鄉歌 解讀의 考究 二篇

—禱千手觀音歌와 願往生歌—

金 完 鎭*

I

이 小稿는 筆者가 진행해 오고 있는 鄉歌 解讀의 理論과 實際에 대한 考究의 一環으로⁽¹⁾, 禱千手觀音歌와 願往生歌를 대상으로 한다.⁽²⁾ 이 두 노래를 解讀함에 있어 筆者가 取하는 태도는 前者에 讚耆婆郎歌, 怨歌 및 慕竹旨郎歌를 解讀할 때 취했던 것과 같다.

한편으로는 原典批判을 通하여 原文의 轉訛를 訂誤하며, 또 한편으로는 借字表記의 基本 原理들을 발판으로 既往의 解讀들을 檢證 批判하며, 그것을 발판으로 筆者의 代案을 提示하는 方法을 택하는 것이다.

먼저 『三國遺事』에 실린 두 노래의 原文을 보이고, 다음에 章을 나누어 한 篇씩 그 解讀을 考究하겠다.

禱千手觀音歌

膝盼古召旻
二尸掌音毛乎支內良
千手觀音叱前良中
祈以支白屋尸匱內乎多
千隱手 叱千隱目盼
一等下叱放一等盼除惡支
二于萬隱吾羅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
阿邪也 吾良遺知支賜尸等隱
放冬矣用屋尸慈悲也根古

* 서울大學校 人文大學 敎授 國語學

(1) 理論的 作業으로는 拙稿 1977a, 1977b, 1978을 發表하였고, 具體的인 解讀을 提示한 것으로는 1979a와 1979b가 있다.

(2) 鄉歌 各篇에 대한 呼稱을 모두 노래 이름답게 정한 것이 无厓 梁柱東임은 周知의 事實인데 命名에 특별한 잘못이 없는 限, 개인의 趣向에 따라 변경하는 것은 부질없기도 하려니와 實益도 없는 일이다. 아니, 鄉歌 解讀에 대한 无厓의 貢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그가 붙인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道理요, 禮儀일 것이다.

願往生歌

月下伊底亦
 西方念丁去賜里遣
 無量壽佛前乃
 惱叱古音^{郷言云}多可支白遣賜立^{報言也}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兩手集刀花乎白良
 願往生願往生
 慕人有如白遣賜立
 阿邪 此身遣也置遣
 四十八大願成遣賜去

II

禱千手觀音歌에 대한 *先輩 學者들의 解讀과 理解는 다음과 같다.

小倉進平

解 讀 :

무릎을 굽으리며
 듯 손바당을 모오(아) 피어
 千手觀音入 얹해
 빌어 솟오어 두오다
 즈문손으로 즈문 눈을
 한무리플 노하 한 무리플 버리어
 두만 내라
 한 무리산 주서 고티올더라
 阿邪也 나애 씨티살든
 노흔들 쓰오아 慈悲이 큰고

意 譯 :

무릎을 꺾어, 두 손을 합하여, 千手觀音의 御前に 所願의 말씀 드린다. 千의 손, 千의 눈을 가지셨아 오니, 하나를 던져 하나를 덜어, 돌뿐인 나에게 주옵소서. 하나라도 내려 주시어 고쳐 주옵기를. (阿邪也) 나에게 끼쳐 주시면, 던져 주시는 慈悲야 얼마나 큰가.

梁 柱 東

解 讀 :

무릎을 고조며
 들썽바당 모호누아
 千手觀音入 前아히

비슬볼 두누오다
 즈문손入 즈문눈홀
 항돈홀 노항 항돈홀 더옴더
 둘 업는 내라
 항돈사 그소시 고티누웃다라
 아으으 나애 기리살돈
 노틱 뽈 慈悲여 큰고

釋 詞：

무릎을 곧추며 두 손바닥 모으와
 千手觀音 前에 비움을 두노이다!
 千 손에 千 눈을 하나를 놓고 하나를 더옴기
 둘 없는 내라. 하나야 그으기 고치올러라.
 아으으, 내게 끼쳐주시면, 놓되 쓰을 慈悲여 얼마나 큰고!

池 憲 英

解 讀：

무릅홀 고조며
 들썹바당 모웃누아
 千手觀音入前아히
 비스슬볼 두누오다
 즈문손 즈문눈홀
 항돈호노항 항돈홀덜웃
 둘옴(업)는 내라
 항돈수는 중이 예(괴)누웃다라 아이야
 내애 기리살돈
 노항덕 뽈 慈悲여 큰고

通 解：

무릎을 꿇고 두손을 모아 千手觀音前에 비옵나이다
 千手千眼을 하나를 내놓으시고 하나를 덜으시어
 둘없는 나이오니 하나쯤은 슬그머니 사랑하시와 나리어 주시옵더이다. 아아!
 나에게 끼치어 주신다면 덜어 내놓으시되 그쓰시을 慈悲만은야 크시기도 하외다!

金 善 琪

解 讀：

무릅깔 고도며
 두볼 숨 묻고 더나라
 천 숫 관음 알배
 빌이더 삼을 두나쁘다
 즈문 손 즈문 눈깔

까단 째애 까판깁 달압디
 두불우 만 우리라
 까단사 주이고 더나꼴다라
 아사라 우리래 긴디리 줄 딸안
 오돌이 [牟]을 짜비란 깐고

現代言 翻譯：

무릎을 고치오며
 두손 물고 다가가라
 즘손 관음보살께
 빌어 사퇴두옵니다
 즘손 손 즘손 눈이나
 같은 것에서 하나를 더소서
 두 눈이 먼 저옵니다
 하나쯤 주셔도 지나오리
 아사라 내게 끼쳐줄 것을
 어디 쓰울 자비심이온지

徐 在 克

解 讀：

무릎을 고조며
 두불 손바닥 모히느아
 千手觀音 前아현
 비히술불 두느오다
 즘손 손 ㅍ ㅍ 즘손 눈흘
 ㅎ든하 ㅅ리 ㅎ든하 ㅅ리
 두불후 먼 나라
 ㅎ든사 그시 고지느오또라 아으
 나아 기터히실든
 ㅅ리 ㅅ리 ㅅ리 慈悲야 심고

現代語譯：

무릎을 곧추하며
 두 손바닥 모으면서
 千手觀音 前에
 비움을 두노라.
 일천 손, 일천 눈을
 하나(를) 버리(소서), 하나를 빼(소서).
 둘(다) 먼 나라
 하나야 슬그머니 꽃고 있더라. 아아!
 나에게 끼치실 터이면

버림에(도) 쓰는 慈悲인지라 심구(소서).

金 俊 榮

解 讀 :

무릎을 고조며
두손 손바닥 모퉁노아
千手觀音入 前아히
비이△숨을 두노오다
즈른 ㅅ ㅅ즈른 눈흘
ㅎ든ㅎ 노ㄷ ㅎ든흘 덜아△
두손 움언 내라
하든사 그스샤이 고디노오스 드라
아야여 나애 깃디△살든
노돌디 쓰울 慈悲여 군고

直 譯 :

무릎을 곧추며(무릎을 꿇고)
두 손바닥을 모아(두 손을 합장하여)
천수관음보살 앞에
빌어 사뵈나이다.
千 손 千 눈을(천 손 천 눈 중에)
하나를 내놓고 하나를 덜어
둘이 없는 나라.
하나만 그욕하시게 고치옵소서(슬쩍 하나만 고쳐 주옵소서)
나게 끼쳐 주신다면.
놓았으되 쓰은 慈悲는 클고(하나를 내놓았으되 쓴 자비심은 얼마나 클까)

1. 膝盼 古召旅

表記에 약간의 차이들이 있기는 하지만, ‘膝盼’을 ‘무릎’로 읽는 데에는 小倉進平 以來로 見解의 一致를 보아 온 곳으로 筆者로서도 異議가 없지만, ‘古召旅’는 根本的인 再檢討를 要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小倉進平은 ‘古’를 音讀하고 ‘召’를 訓讀하여 ‘구부리며’라고 읽었으나, 訓主音從이라는 表記基準의 逆이 될 뿐만 아니라 ‘보르-’(召)와 ‘구부리-’의 ‘부리’도 完全히 一致되는 것이 아니어서 无厘도 이를 拒否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无厘의 代案인 ‘고조며’는 ‘古召旅’ 석자를 내리 音讀한 것으로 ‘拱’의 意味를 가졌던 것으로 把握되었는데, 그 以後의 解讀者들이 대개는 이를 默守하고 더러는 變更을 試圖하되 그에 대한 약간의 變改를 보이는 데 그치고 있음으로 보아, 다른 많은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无厘의 影響

力이 至大함을 目擊할 수 있다. 筆者도 한때는 訓主音從의 表記 基準의 例外로 ‘古召旅’가 代表的인 例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였으나⁽³⁾, 이 語詞로서는 前後의 意味 脈絡의 正常的인 確保가 어렵다고 判斷하여 原點에 되돌아가 再檢討해야 할 것으로 매듭지었다.

‘부터 向하수바 손 고초샤 밤낫 날웨를 곱죽도 아니하샤’(月釋 I : 52)와 같이 恭敬하는 자세를 나타냄에 있어 ‘고초다’가 ‘손’과 關係하며 쓰인 예는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지만, 무릎을 곧 초 세운다는 것이 祈禱에 合當한 姿勢일 수 있는가는 저속이 의심스러운 存在다. 金俊榮이 그의 直譯에서 생각한 것처럼 ‘무릎을 꿇으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것은 그의 希望을 담은 “생각”이지 ‘고조며’로부터 論理的으로 誘導될 수 있는 “意味”가 아니다.

金善琪의 ‘고조며’(=고치오며)는 意味上으로 文脈에 適應시키려 한 試圖이지만, 도(=召)의 認識은 그 特有的 것으로 音韻史의 通念에서 멀리 벗어나 있다. 筆者는 부처 앞에 祈求하는 女人의 모습은 역시 무릎을 꿇은 姿勢라야 하며, 무릎을 곧추 세우고 웅크린 姿勢가 아닐 것을 前提하며, ‘古召旅’라는 表記도 필경은 訓主音從의 範疇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 아래 새로운 解讀을 찾았다. 筆者에게 있어 ‘古召旅’는 ‘느조며’라 읽힌다. 卽 다소곳이 合掌 拜禮하는 모습인 것이다.

‘古’는 이른바 義訓借로 ‘느조며’의 ‘느’를 위하여 ‘느-’이 利用된 것이다. 傳統的인 說明方法으로는 ‘느-’에서 ‘느’를 取하였다고 할 곳이나, 筆者는 ‘리’이 다음의 ‘召’에 依해서 代替添記된다고 말한다.(假令 ‘下是’로서 ‘아리’가 表記될 때 ‘아래’에서 ‘알’을 取하고 거기에 ‘이’(是)를 ‘加한다고 하지 않고 ‘아래’의 未母音 ‘애’가 ‘이’로 代替된다고 말한다). ‘召’는 그 音이 ‘소’이나 ‘招’와 通用될 때에는 ‘조’가 된다(吏讀 ‘召史’(조이)의 ‘조’는 여기 말미암은 것일 것이다).

‘古’의 訓 ‘느’를 義訓借한 例로는 怨歌中에 ‘月羅理月支古理因=드라리 그르매 느린=달이 그림자 내린’(筆者의 解讀)의 一例가 있고, 앞으로 우리가 다룰 本歌 第八句의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도 이 테두리에 들 것으로 생각된다.

2. 二尸掌音毛乎支內良

‘二尸’에서 ‘尸’을 ‘ㅅ’으로 읽어 ‘똥’으로 理解한 小倉進平의 解讀을 論外로 치면⁽⁴⁾ 梁柱東·池憲英의 ‘둘’, 金善琪, 徐在克의 ‘두불’, 그리고 金俊榮의 ‘두홀’이 남게 된다. 그러나 音韻史的 觀點에서 ‘둘’을 除外시키면 雞林類事的 ‘二日途李’를 意識한 ‘두불’과 處容歌의 表記例 ‘二盼’을 意識한 ‘두홀’만이 論議의 對象이 된다. ‘二盼’이 ‘두홀’의 表記라면 ‘두불’에 대한

(3) 그러나, 訓主音從의 基準에 대한 例外 自體는 아직도 認定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4) ‘尸’로 그 末音이 ‘리’ 音임이 分明한데도 ‘ㅅ’으로 읽은 것은 이런 位置에 ‘두’만 나타날 수 있지 ‘둘’이 올 수 없다는 後世의 語法에 影響받은 듯하나, ‘똥’의 想定도 非現實의이기는 마찬가지다. ‘二尸’은 額面대로 ‘둘’의 先行形으로 보고, ‘掌音’과 對等接續시킨 古代語의 語法에 注目할 자리이다.

方言形, 또는 그 先行形으로서 母音間에 ‘β’ 아닌 ‘γ’의 存在를 考究할 만한 存在이나, ‘胎’이 단순히 ‘을’ 또는 ‘불’을 나타냈을 可能性이 尙存하기 때문에 筆者로서는 ‘두불’에 머문다. 中世語의 모든 ‘빙’을 ‘ㅂ’으로 溯及시키지는 않기 때문에 ‘두불’ 아닌 ‘두불’을 維持시켜 둔다.⁽⁵⁾

‘掌音’이 ‘손바닥’을 나타낼 것임은 分明하나, 文證된 語形이나 方言形을 莫論하고 ‘ㅁ’으로 끝나는 語形을 發見할 수 없는 것이 解讀者들의 苦悶이었다.

小倉進平, 梁柱東, 池憲英에 이어지는 ‘손바당’ 내지 ‘쑤바당’은 좀더 一般的인 ‘손바닥’을 버리고 ‘掌音’에 近接시키려는 苦衷이 理解되기는 하나, 그로써 ‘掌音’이 意圖한 語形이었다고 하는 그들의 論理 自體를 받아 들일 수는 없다. ‘ㅇ’으로 끝난 語形의 表記였다면 ‘ㅇ’ 末音의 漢字들이 없지 않은 形편이니, 假令 ‘應’字等으로 얼마든지 정확하게 적을 수 있었던 것이다.

反面, 徐在克, 金俊榮의 ‘바담’은 이러한 無理를 意識하고 그것을 止揚하려는 努力의 發現으로 一段은 높이 評價될 存在이나, 이 再構形은 그들의 希望을 담은 것이지 ‘바당’과 함께 ‘바닥’을 滿足시켜 줄 수 있는 現實的인 存在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金善琪의 ‘숨’에 이르려는 核心을 더욱 멀리 벗어났다는 느낌을 받을 뿐이다.

筆者는 ‘掌音’에 대하여 ‘쑤ㅂ롬’이라는 推定을 해 오고 있다.⁽⁶⁾ ‘쑤ㅂ롬’의 ‘ㅂ롬’은 ‘壁’을 의미하는 語詞인데, ‘ㅂ롬’이 ‘벽’으로 交替되면서, 이 複合名詞에서도 같은 交替가 일어나 現代語에서 보는 ‘손벽’을 結果시켰다고 보는 것이 筆者의 論理다. 따라서 ‘掌音’은 ‘손바닥’ 또는 ‘손바당’과 거의 같은 것을 나타내는 것이면서, 形態上으로는 서로 상관이 없는 存在가 된다.

‘毛乎支內良’에 대하여는 解讀이 꽤 많이 엇갈리지만, ‘毛乎’의 意味를 ‘모으다’로 보는 데 있어서만은 一致를 보인다. 앞에 온 目的語 ‘二尸掌音’의 存在로 보아 이런 해석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當然한 일이었다. 그러나 筆者는 그 다음의 ‘支’字를 指定文字로 보기 때문에 이를 ‘支’字와 同一視하여 訓讀하거나(小倉進平), 音讀하는 見解들(池憲英 ‘ㅅ’, 金善琪 ‘디’, 徐在克 ‘히’ 金俊榮 ‘△’)과는 同調할 수 없고, 오히려 “虛字”로 보는 无厓와 結果적으로는 같은 態度를 보이게 된다. 다만 ‘支’字를 指定文字로 봄으로 해서 그 앞에 오는 ‘毛乎’의 解讀 態度와 語形 推定에 있어서는 그를 包含한 다른 解讀者들과 見解를 달리한다.

‘支’을 指定文字로 보는 것은 筆者의 假說의 理解에 屬하는 것이지만, 이 指定文字는 그 앞의 字 또는 字들을 풀어 읽게 指示한다. 따라서 筆者에게 있어서는 ‘毛乎’ 두字를 내리 音讀하여 ‘모호’ 또는 그에 類似한 結果에 倒達하는 論理를 따를 수 없다. ‘毛’字는 音 ‘모’이지만, 한 單語의 머리에 올 때에는 그 音으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없다’는 字義에 依據한 ‘몬’이라는 訓에 依하여 使用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筆者의 基本 態度이다. 따라서 ‘毛冬’을 같이 ‘모돌’로

(5) 이에 대한 論議는 李基文(1973: 92-95)을 參照, 慶尙道 方言이라 하더라도 ‘ㄷㅂ-’, ‘두불’, ‘수불’의 ‘빙’에 대응되는 ‘ㅂ’을 가지지 않는 것은 注目할 일이다.

(6) 拙稿(1973)에서의 內容을 또다른 作業(1977b: 36)에서 再確認하였다.

읽는다 해도 筆者는 그것을 ‘몰+돌’→‘모돌’로 認識하는 것이다.

한편 ‘乎’字는 ‘온 호’라 부르는 存在인데, ‘온’이나 ‘호’가 아닌 ‘오’로 읽히는 곳이 더 많은 것이 鄉歌 表記에서의 現實인데, 筆者는 ‘毛乎’에서의 ‘乎’도 이 ‘오’로 받아 들여 ‘毛乎’를 ‘몰+오’ 即 ‘모도-’로 읽는다. 即 이 ‘毛乎’는 願往生歌에 보이는 ‘集刀花乎白良’의 ‘集刀’와 異音同曲인 것이다.

後世의 資料에 보면 ‘모도-’와 ‘모호-’가 다 發見되지만, 初期의 한글 文獻에서 ‘모도-’와 경쟁하고 있는 것은 ‘외호-’이고 ‘모호-’는 오히려 그보다 뒤진 時期에 많이 보이는 것을 보면 ‘모호-’란 ‘모도-’와 ‘외호-’의 混淆로 일우어지지 않았는가 생각될 存在인 것이다.

‘內良’는 ‘누아’, ‘ㄴ아’로 읽히고 있으나, ‘良’字를 母音末音字 밑에서는 ‘라’로 읽도록 하고, 子音末音字 아래에서만 ‘아’로의 讀法을 許用함으로써 一種의 音韻規則을 想定하고 있는 것이 筆者의 基準이기 때문에 筆者는 ‘內良’를 ‘ㄴ라’로 읽는다.⁽⁷⁾

3. 千手觀音叱前良中

‘千手觀音’은 漢字語이므로 問題가 없다. ‘前良中’의 ‘前’에 대하여는 訓讀과 音讀이 엇갈리며, 둘다 論理的인 瑕疵가 없으면서도 다른 쪽을 排除할 絕對性을 지니지는 못한다. 다만 筆者가 訓讀 쪽을 택하여 ‘알파리’로 읽는 것은 願往生歌의 ‘無量壽佛前乃’에 있어서처럼 音讀의 絕對性이 보장되어 있지 않고, 音讀과 訓讀의 可能性이 論理的으로 對等할 때에는 訓讀 쪽을 택한다는 筆者의 基本 態度에 말미암는다.

4. 祈以支白屋尸置內乎多

‘祈以支’에 대하여는 그 語幹을 中世語의 ‘빌-’(祈)와 관련시켜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支’字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해서 여러가지 다른 語形들을 提示하고 있으나, 筆者는 ‘支’을 指定文字로 判斷하기에, 實質的인 語幹은 ‘祈以’로 끝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비슬불’과 같이 읽으면, ‘以’를 ‘비-’의 母音 添記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빌-’의 末子音 ‘ㄹ’이 ‘ㅅ’ 앞에서 脫落되는 音韻規則을 이 時期에 認識하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筆者는 비록 假說的인 것이지만, ‘비리-’라는 語幹을 세운다. 中世語의 ‘빌-’이 上聲을 지녔었다는 사실도 勿論 이 假說 設定에 考慮되어 있다.

‘白屋尸’은 動名詞形으로 ‘-슬불’, ‘置內乎多’는 ‘두느오다’로 읽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7) ‘良’字의 讀法에 대한 現實의 基礎를 提示한 最初의 業績으로는 李崇寧(1955와 1956)을 參照.

5. 千隱手 叱千隱目盼

‘千隱手’와 그 다음 ‘叱’字 사이의 空間에 대하여 혹은 그것을 無視하고 혹은 빈칸됨을 表示하고 혹은 ‘隱’字를 代入시키고 있으나(金俊榮) 그 差異가 解讀 結果에 影響을 미치고 있지는 않다. 金俊榮에게 있어서는 ‘手’의 末音添記로서의 ‘隱’이 缺字된 것으로 보고 있으나, ‘目’에 대한 末音添記가 行해져 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適切한 補入인 것 같지가 않다. 筆者의 생각으로 是處格 表示의 ‘良’를 補入하여 ‘즈른 소나트 즈른 누늘’이라고 읽을 곳이 아닌가 한다.

6. 一等下叱放一等盼除惡支

둘째 ‘一等’은 對格의 ‘盼’을 取하고 있어 별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첫째 ‘一等’에 붙은 ‘下叱’은 格形態라고 하기는 어려운 存在다. 여기서 ‘叱’은 格形態가 省略된, 主로 對格의 자리에서 종종 發見케 되는 문제의 ‘叱’로 보여, 그 앞에 온 ‘下’는 ‘一等’에 붙은 接辭이거나 또는 名詞일 것으로 짐작된다.

‘一等下’는 語彙史的 觀點에서 考察될 對象으로 筆者는 생각한다. 中世語 資料에서 觀察되는 數詞 ‘1’은 名詞形의 ‘하나’와 冠形詞形의 ‘하’를 가지고 있는데, 前記의 ‘一等盼’에서 보는 ‘一等’은 對格을 取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아닌 ‘하’에 이어지는 存在로 判斷되는 것이다. 이 ‘一等’은 雞林類事에서 ‘一曰河屯’이라고 한 것과 同一하면서, 한편으로는 ‘一等枝良出古(祭亡妹歌)’에서 보는 冠形詞形과도 形態上으로 同一한 것이다. 卽 ‘一等’이라는 같은 形態가 名詞의 用法과 冠形詞의 用法에 通用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겠는데, 그렇다면 中世語의 ‘하나’의 起原은 어디에 있는가. 二中歷에 katana로 反映된 ‘하나’의 先行形은 바로 本條에 보는 ‘一等下’로서 數詞 ‘一等’에 依存名詞 ‘下’가 결합된 것이었다고 보는 것이다. 이 관계는 ‘므슴’(>무슨)이 冠形詞로만 쓰이게 된 과정과 흡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放’은 단 한자에 지나지 않은데도 意見이 意見이 區區하다. 그러나 그 앞의 目的語 ‘一等下叱’이 ‘손’을 가리키는 것으로 判斷되는 文脈이기 때문에 오히려 初期의 解讀者들이 내놓은 ‘놓-’가 最善이라고 본다.⁽⁸⁾ 다만 語尾 部分을 보일 末音添記가 없다고 해서 語幹만을 적거나 ‘노하’와 같은 不完全한 表記를 하는 데에는 贊同할 수가 없다. 末音添記의 省略은 ‘春’, ‘目’과 같은 名詞에서 흔히 보는 일이고 用言의 경우는 드문 일이지만 省略의 心理는 同一하였으리라 본다. 굳이 末音添記를 하지 않아도 讀者의 讀解에 支障이 없으리라고 表記者가 想定하였을 때에 添記의 省略이 나타났을 것인데, 用言에서는 副動詞形 ‘아/어’ 또는 ‘고’에 해당하는 자리에서 主로 이 現象이 보이는 듯하다. 願往生歌의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의 ‘仰’도 그 한 例일

(8) 金善琪는 이 ‘放’도 마지막 句의 ‘放多矣’의 ‘放’과 함께 ‘於’의 잘못으로 보았으나, 後者의 ‘於’가 오히려 이 ‘放’字에 이끌려 轉訛된 것이고, 이 ‘放’字에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다. 千手觀音의 千手千眼에서 손 하나 마다에 눈 하나씩임을 想起한 일이다.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있어서는 小倉進平의 ‘노하’만이 가장 가까운 解讀이라고 본다.

‘除惡支’에 대하여는 文字 그대로 十人十色의 解讀들이어서, ‘머리어’(小倉進平), ‘더 옴디’(梁柱東), ‘덜 웃’(池憲英), ‘달압디’(金善琪), ‘싸히’(徐在克), ‘덜 앓’(金俊榮)과 같은 狀況이다. 一次的으로는 ‘支’字에 대한 理解의 差異에서 오는 結果인데, 筆者는 ‘支’을 指定文字로 보기 때문에 ‘덜’(除)+‘악’(惡)의 結合으로서의 ‘더럭’을 提示한다.

7. 二于萬隱吾羅

末尾의 ‘吾羅’ ‘내라’를 基準으로 하여 약간의 出入들이 있으나 큰 문제가 없지만, ‘二于萬隱’에 대하여는 小倉進平의 ‘두 만’을 論外로 하고서도 梁柱東에 비롯되는 ‘둘 없는’이라는 系列(池憲英)과 ‘둘이 먼’이라는 金善琪·徐在克의 해석을 볼 수 있다. 前者의 경우는 ‘于萬隱’석자를 내리 音讀하여(‘萬’의 母音이 無視된 것은 且置하고) ‘없는’의 現代 方言形 ‘음는’에 近接하게 되는 것을 根據로 한 것이나, 中世語에서도 이미 그런 뜻으로는 ‘업슨’을 쓰지 ‘업논’을 쓰지 않았다는 事實의 指摘만으로도 이 解讀의 不適當은 들어나는 것으로 안다. 中世語에서의 ‘업논’은 動詞로서 ‘없어지는’의 뜻에만 쓰였던 것이다.

‘둘 먼’의 경우에는 ‘于’를 ‘二’에 붙여 助詞 또는 接尾辭로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于’가 主格形이 되거나(金善琪), 副詞 形成의 接尾辭가 된다는 論理다.

두 解釋에 공통된 點은 ‘于萬隱’ 또는 ‘萬隱’이라는 단어를 내리 音讀하고 있다는 點인데, 解讀의 反省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 안다.

筆者는 ‘二于萬隱 吾羅’로 끊고 ‘두불 마몬 내라’라고 읽는 것인데, ‘于’는 ‘之’와 같이 實詞로서는 ‘가다’를 意味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義訓借된 것으로 본다. ‘于萬隱’ 또는 ‘于萬’의 例로는 各各 다음의 것이 있다.

曉留朝于萬隱夜未(請佛住世歌)

際于萬德海胎(稱讚如來歌)

確認添記 ‘隱’이 있고 없고의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은 모두 ‘가몬’(黑玄)이라 읽힐 例들이다. 그런데 이들과는 달리 ‘二于萬隱’의 ‘于’는 ‘가’ 아닌 ‘마’에 쓰인 것이 되는데, 이는 鄉歌 表記에서 ‘아’, ‘어’가 이른바 通音의 關係에 있었거나, 아니면 本來 같이 ‘가몬’이었던 것이 이 語詞가 가진 어떤 特殊한 여건으로 ‘마몬’에의 變化를 수행하였거나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8. 一等沙隱賜以古只內乎叱等邪

이 第八句는 가장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句節이다. ‘古只內乎叱等邪’를 ‘고친다’라고 보자

나 ‘내려 준다’라고 보거나 또는 ‘꽃는다’라고 보거나, 더 나아가 金善琪처럼 ‘古’를 위로 붙여 ‘디나다’라고 읽거나간에 한결같이 ‘부처’를 主語로 한 動詞로 보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尊貴한 人物을 主語로 한 文章에서 動詞나 形容詞가 여러개 羅列될 때에 尊敬의 補助語幹 ‘시’가 그 各各의 用言에 붙을 수도 있고 或 省略될 수도 있는 일이지만, 文末의 定動詞에 대해서만은 그 省略이 不可能함을 우리는 안다. 그런데 지금의 ‘古只內乎叱等邪’에는 그 ‘시’가 發見되지 않는 것을 看過할 수 없으니, 이 事實은 손을 놓고 눈을 덮고 하는 主體로서의 千手觀音의 행동이 여기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요, 따라서 ‘古只內…’라는 行動은 千手觀音 앞에 무릎 꿇어 祈願하는 이 노래의 辭說者 自身の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指示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千手觀音을 主語로 하는 定動詞는 어느 것인가. 筆者는 ‘隱賜以’를 ‘숨기주시씨’라고 읽는다. ‘賜’가 여기서 ‘시’ 아닌 ‘주시-’를 나타내고 ‘以’는 그 訓 ‘으’로 또는 ‘立’字의 轉訛로써 語尾 ‘-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두 눈을 감은 나라고 하여 하나야(=만) 은밀히 주십시오 하며, (나는)……한다는 內容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古只’는 무엇인가. 筆者는 ‘只’를 ‘呂’의 轉訛로 看做하고 ‘느리’라 읽는다.⁽⁹⁾ 이곳의 ‘느리-’는 訓蒙字會(下: 19)에 보이는 ‘絡’의 訓에 해당하는 것으로 휘감겨 매 달리는 것을 뜻한다. 語尾 部分은 내리 音讀하여 ‘-느웃드야’로 한다.

筆者가 理解하는 이 노래의 內容은 끝까지 祈求로 一貫하고 있다. 한번 빌자마자 눈을 고쳐 주거나 꽃아 주는 奇蹟이 쉽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니다.

9. 阿邪也 吾良遺知支賜尸等隱

감탄사 ‘阿邪也’는 表記를 존중하여 ‘아야여’라 읽어 둔다.

‘吾良遺知支賜尸等隱’에 대하여는 小倉進平의 ‘내애 씨티살든’에 약간의 修正들을 하고 있는 정도인데, 金善琪가 ‘賜’를 ‘주시’로 본 것이 좀 異色的이다.

筆者는 이 句節에 대하여도 根本의인 手術을 한다. ‘知支賜尸等隱’의 ‘知’는 그 다음에 指定文字 ‘支’이 와 있어 訓讀될 것을 要求한다. 即 ‘아르살든’ 또는 ‘아르살든’의 表記인 것이다. 따라서 ‘知’와 붙여 ‘씨티-’, ‘기티-’의 表記로 보던 ‘遺’는 ‘遭’字의 誤字로 위의 단어에 붙는 語尾가 되니, ‘吾良遺’는 ‘내라고’가 된다.

10. 放冬矣用尾尸慈悲也根古

‘放冬矣’의 ‘放’의 ‘於’의 轉訛임을 金善琪가 指摘한 것은 劃期的인 일이었다. 安秉禧의 研究(1965)로 明確해 진 것처럼 語尾 ‘-고’로 끝나는 疑問文 안에는 疑問詞가 들어 있게 마련인데 ‘放冬矣’로 놓아 두고, ‘노ㅎ디’니 하고 읽어 가지고는 이 文法的 要件을 充足시킬 수가 없다.

(9) 遇賊歌에서는 ‘只’字를 ‘見’의 轉訛로 보는 見解를 筆者는 가지고 있다.

‘根古’는 筆者가 訓主音從의 原則에 벗어난 例外的 表記例로 인정하고 있는 얼마 안되는 것 가운데 하나이다.

‘두 눈을 감은 나라는 것을 아실 것 같으면’이라는 前提를 앞에 두었을 때 ‘어디에 쓸 慈悲가 큰가’, 卽 ‘큰 慈悲는 어디에 쓰라고 存在하는가’라는 意味가 展開될 수 있는 것이다.

III

願往生歌에 대한 先輩 學者들의 解讀과 理解는 다음과 같다.

小倉進平

解 讀：

돌헛 밍에
西方으로 가샤리고
無量壽佛 앞애
뉘웃기 어다가 솟고샤셔
셀 김산 尊에 올워
두 손(을) 모도와솟아
願往生願往生(이라고)
그릴 사람(이) 잇다 솟고샤셔
이몸(은) 그냥 두고
四十八大願을 닐우꼬샤과라

意 譯：

달 아래, 西方淨土로 向하시어, 無量 佛 앞애 懺悔를 하셔라. 思慮 깊으오신 尊位를 우러러, 두 손을 모아, 願往生願往生 그릴 사람 있다 말씀 드리시오. (阿邪) 이 몸은 그냥 두고 四十八大願을 이루옵소서.

梁 柱 東

解 讀：

돌하 이데
西方서장 가샤리고
無量壽佛前애
닐곰다가 솟고샤셔
다뉘 기쁘산 尊어히 올워려
두손 모도호 솔바
願往生願往生
그릴사름 잇다 솟고샤셔
아으 이몸 기력 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살까

釋 詞：

달하, 이제 西方까지 가서서
無量壽佛 前에 일러다가 사죄소서 —
「다짐 깊으신 尊을 우러러 두 손을 모두와
「願往生願往生」 그릴 사람 있다!」고 사죄소서
아으, 이 몸을 길어 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실까[정사옵네].

池 憲 英

解 讀：

돌하 이데 西方까지 가사리고
無量壽佛前에 님곰다가 삼고사서
담(설미·드리) 기쁘산 尊어히 올릿
두손 모도호솔하
願往生願往生
慕人있다 삼고사서 아으
이몸 끼터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살가

通 譯：

달아! 달아! 이제 西方世界까지 가시어서
無量壽佛前에 일러(報告하여)다가 살외옵소서
信誓(慧智) 깊으신 佛尊을 우러러 두손을 모아
願往生願往生 往生極樂을 願하는 그리워하는 이가 이곳에 있다고(無量壽佛前에) 살외옵소서
어허! 이몸을(이승에) 남기어 두고 四十八大願을 所願成就하올가……

金 善 琪

解 讀：

달 까이 밍에
서방 가뎡 까사리고
무량수불 얹애
노오곰 까가더 삼고사쇼
다덤 깊산 존애 바라기
두팔 숨 묻오 끌고
완왕생 완왕생
그리는 사람 잇다 삼고사쇼
아으 이 몸 보내 도고
사설발 폐이완 널고사쇼.

現代語 翻譯：

달 밑에

서쪽까지 가시라고
 무량수불 앞에
 다시금 많이 삼으소서
 다짐 깊으신 님께 바라게
 두 손 모아 가지고
 가고파라 가고파라
 그리는 사람 있다 삼으소서
 아아 이 몸 보내주고
 사십팔 대원 이룰소서

徐 在 克

解 讀 :

돌하 이적
 西方 숫덩 가시리겨
 無量壽佛前에
 뉘으줄 오람 함즈키 솟겨시서
 다짐 기쁘신 尊으회 울월히
 무불 손 모도호솔바
 願往生願往生
 그릴 사름 잇다 솟겨시서 아으
 이몸 기타 두견
 四十八大願 이룩겨시가

現代語譯 :

달아 이제
 西方 거쳐 가시려는가요?
 無量壽佛前에
 「누우침(이) 오람」(을) 함쥔 사뢰소서.
 다짐 깊으신 尊께 높이
 두 손(을) 모으와
 「願往生願往生」(하며)
 그리는 사람 있다(교) 사뢰소서.
 이몸 남겨 두고서
 四十八大願 이루실까?

金 俊 榮

解 讀 :

돌하 이데
 西方 넘더 가사릿고

無量壽佛 前이
 늦곰다갠 솜고샤서
 다덤 김산 尊의회 올웁
 두손 모도 고조솜아
 願往生願往生
 그빌 사롬 잇다 솜고샤서
 아—— 이몸 짓더 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샤가

直 譯：

달아 이제
 西方 넘어 가시려는고
 (가시저든) 無量壽佛 前에
 일러 사퇴옵소서
 맹서 깊으신 尊에게 우러러
 두 손을 모아 곧추시와
 往生을 願하여 往生을 願하여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사퇴옵소서.
 아—— 이몸 남겨 두고
 四十八大願 이루오실까

1. 月下伊底亦

小倉進平의 ‘돌에 밀예’(金善琪가 이를 따른다)와 梁柱東에 비롯하는 ‘돌하 이제’의 두 類型을 볼 수 있으나, 양쪽 다 適當한 解讀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月下伊’는 ‘月羅理’의 異樣 表記로서 後者가 音讀字로만 末音添記 하고 있는데 反하여 ‘月下伊’ 쪽은 ‘下’의 訓 ‘아래’와 거기에 대한 代替添記로서의 ‘伊’의 附加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여기서 ‘下伊’로 ‘아리’를 적은 것은 慕竹旨郎歌에 두번 쓰인 ‘下是’가 ‘아리’를 나타낸 것과 同一하다(作乎下是=일오아리, 有叱下是=이샤리).

‘伊底亦’를 ‘이제’의 表記로 보는 것이 近似한 解讀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近似한 데 그치는 讀法이다. 筆者는 두가지 難點을 指摘한다. ‘伊’의 音이 ‘이’이고 뜻으로도 ‘이’(此)를 辭典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語頭에서 ‘伊’를 音讀하여 ‘이’라 읽거나 혹은 訓讀하여 ‘이’라 읽을 例는 鄉歌 안에 存在하지 않는다고 본다. 이런 位置에서의 ‘伊’는 傳統的인 訓으로 ‘더’라 읽어 ‘이’(此, 是)와 區別되게 되어 있는 것으로 筆者는 理解하는 것이다. 한편 ‘底’는 音 ‘더’로 다음의 ‘亦’을 혹 ‘이’라 읽는다 해도 그와 어울려 ‘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제’의 表記라면 더 適當한 漢字들이 쓰였을 것을 期待할 수 있다.

小倉進平이 ‘底亦’를 떼어 읽은 것은 妥當한 處事이나 이것을 ‘밀예’라고 읽을 수는 없다. 特別히 處格이 ‘예’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노릇으로, ‘月下伊’의 ‘下伊’를 ‘햇’으로 읽은

것과 함께 牽強之策이라 아니할 수 없다. 特히 ‘月下伊’를 ‘ㄷ라리’로 하여 主格으로 본 지금에 있어서는 意味面으로도 取할 수 없는 讀法이다. ‘底’는 副詞的 意味로는 ‘어찌하여’를 뜻한다. 따라서 ‘亦’을 末音添記로 하여 여기 實在하는 것은 中世語의 ‘엇네’에 該當하는 疑問副詞인 것이다. ‘엇네’를 ‘엇디하야’의 縮約으로 성립된 語形이라 볼 수 있다면 ‘亦’의 末音으로서의 ‘ㄱ’까지도 이른바 強調形을 反映한 것이라고 받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엇네’의 存在를 確固不動하게 해 주는 것은 第二句로 이어지는 이 文章의 末尾가 語尾 ‘-고’로 끝나 있다는 事實이다. 前章에서 ‘放冬矣’의 ‘放’이 ‘於’라야 함을 論하면서言及하였던 것처럼, ‘-고’로 끝나는 疑問文에는 疑問詞가 들어 있어야 하는 법인데, 現在의 文脈에서 ‘底亦, 을 제외하고는 달리 疑問詞를 찾을 자리는 없는 것이다.

‘底亦=엇네’의 確認은 第一 第二行으로 된 첫 文章의 意味만이 아니라 그 다음 部分과의 意味連結에 대해서도 重要的 轉換을 가져온다. ‘달님이 어찌하여 西方까지 가지겠습니까.’라는 물음 속에는 달의 使命이 既定 事實로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달님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阿彌陀佛께 報告할 使命을 띄고 西方으로 가는 것입니다.’라는 대답이 이 疑問文에는 含蓄되어 있는 것으로, 달의 西方行은 有意志的인 行動인 것이다.

‘돌하 이제 西方々장 가샤리교’라 하였을 때에는 달이 다른 目的으로 西方에 가는 것일 수도 있고, 가는 길이니 내 부탁 좀 들어 阿彌陀佛께 말씀 전해 주시오 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의 우리에게 있어서는 阿彌陀佛을 찾아 뵈고 이 세상에 대한 報告를 드리는 것이 달의 西方行의 目的이니, 報告할 때에 내 말씀 잊지 말고 해 주시오 하는 부탁이 되는 것이다.

2. 西方念丁去賜里遣

‘西方念丁’의 ‘念丁’에 대하여는 吏讀의 讀法에 依據한 无厓의 ‘々장’을 肯定的으로 따르나, 이는 또다른 吏讀讀法 ‘너머’와 함께 後世의 變更된 讀法일 可能性이 많다.⁽¹⁰⁾

3. 無量壽佛前乃

前章 ‘千手觀音前良中’條에서 이미 言及한 것처럼, 여기서는 ‘前’字까지를 音讀해야 한다. ‘前’字의 末音이 ‘乃’字의 頭音으로 確認되어 있는 것이다.

4. 惱叱古音^{鄉言云}_{報言也}多可支白遣賜立

‘惱叱古音’이라는 말 아래에는 ‘鄉言云報言也’라는 俠註가 붙어 있는데,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存在로 누가 붙인 것인지 모르지만(一然이 붙었을 可能性과 함께 三國遺事에 採錄되기 이전에 이미 이런 注記를 가지고 있었을 可能性도 있다.) 그때 이미 罕用에 屬했던 語詞임을 보여 주는 것

(10) ‘所只’, ‘己只’가 ‘까지’(<씨지)라 읽히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경로를 거쳤을 것이 想定되는 것이다.

같다.

筆者는 ‘報言’이라는 證言을 額面대로 받아 들여 ‘報告의 말씀’이라고 해석한다. 이 세상에서 달이 굽어 觀察한 것을 阿彌陀佛에게 報告한다는 뜻이다. ‘惱叱古音’은 音讀한다면 ‘눗곰’이겠고, 첫머리를 訓讀한다면 動詞 ‘저-’ (勞)의 轉成名詞 또는 動名詞形을 義訓借한 ‘눗곰’이겠으나, 어느 쪽도 後世에 그 對應形을 發見할 수가 없다. 筆者는 表記의 一般 原則에 따라 ‘눗곰’ 쪽을 선택하며 이 語詞가 꽤 이른 時期에 廢語化된 것으로 假定해 둔다.

‘多可支’을 ‘다가’로 音讀하며 ‘惱叱古音’ 自體를 動詞形으로 보는 態度는 그것이 小倉進平의 ‘눗웃기어다가’이든 梁柱東의 ‘닌곰다가’이든 이를 一切 排擊한다. 그것은 ‘多可’ 아래에 指定文字 ‘支’이 있어 그 두字를 ‘다가’로 音讀하는 것을 許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多可’를 ‘惱叱古音’에서 빼어내어 別途의 語詞로 본 金善琪, 徐在克의 態度는 妥當한 것이었으며, ‘支’字에 잡혀 添加한 ‘히’를 除去하면 그가 想定한 ‘함즈키’는 正確한 解讀이었다고 본다. ‘多’의 訓 ‘하’와 ‘可’에 대한 ‘—암죽’의 結合으로 徐在克이 方言에서의 存在를 證言한 ‘함죽’이 된다.

‘惱叱古音’에 대한 ‘눗으줄 오랍’도 徐在克의 또 하나의 苦心作이지만, 그 內容이 ‘報言’에 直結되는 것이 아닌데다가 이 대문에서의 ‘報告’는 한 개인(이 노래의 辭說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한 全般的 報告로서 하나도 빠지 말고 모두 사되라는 곳이기에도 意味上으로도 이 文脈에 맞지 않는다. 이 세상에 대한 報告를 細細히 죄다 사될 때에 다음 文章에서 言及될 精進하는 個人의 얘기가 들어갈 수 있는 餘地가 마련되는 것이다.

‘白遭賜立’는 ‘-고라’形의 敬語體로 ‘숭고시셔’라 옮겨지는데, 過去의 解讀들처럼 ‘시’와 ‘셔’ 사이에 母音을 補充하여 ‘-샤셔’라고 읽을 수 있는가는 ‘賜’가 나타나는 많은 다른 例들과 함께 앞으로의 研究 課題라 할 것이다.

5. 誓音深史隱尊衣希仰支

‘誓音深史隱’까지에서는, 異例의으로 ‘史’가 ‘賜’ 대신에 쓰였음이 注目될 뿐, 解讀에 있어서는 无厘의 태두리를 벗어날 수 없으나, 그 以下는 根本的으로 再檢討되어야 할 部分이다.

먼저 ‘尊’은 訓讀하여 ‘모르’라 할 곳이다. ‘모르’가 ‘宗’이나 ‘嶺’을 뜻하는 ‘모르’와 같은 起原일 것이 推測되거니와, 初步의인 資料에 ‘모르’가 ‘尊’의 訓임은 證言되어 있는 것이다.⁽¹¹⁾

다음의 ‘衣希’를 ‘에’ 또는 ‘에게’의 뜻으로 ‘에’, ‘어히’, ‘으희’, ‘의희’ 등으로 읽는 것은 妥當치 않다. 梁柱東의 釋詞가 ‘尊을 우러러’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動詞 ‘우르다’의 目的語로서의 ‘尊’은 對格 以外的의 것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尊’에 붙는 接尾辭는 ‘衣’ 뿐이고 ‘希’는 다음의 ‘仰’과 어울려 複合動詞를 이룬다는 것이 筆者의 見解다. ‘衣’는 訓讀하여 ‘옷’이다. 强

(11) ‘尊’에 대한 ‘모르’는 注解千字文의 ‘모르 중 尊也’에 依據한다.

勢의 添辭라 일컬어 子音 아래에서 ‘긔’, 母音 아래에서 ‘긔’으로 나타나는 形態素로서, 여기서 ‘긔’이 되어 있는 것은 ‘긔’이 母音으로 끝나는 ‘긔’인 것을 뒷받침한다. 慕竹旨郎歌에서의 ‘阿多音乃叱好支賜乎隱’과 ‘目煙廻於尸七史伊衣’에서 各各 ‘긔’과 ‘긔’은 確認되는 存在다(從來의 解讀들에서는 이런 形態素의 確認이 없었던 것으로, 慕竹旨郎歌의 解讀도 筆者의 새 論理에 따른다.). ‘希仰支’는 ‘支’에 依하여 訓讀될 것이 指示되어 있을 뿐, 語尾의 表記가 없으나, ‘브라우워러’라 읽을 것이다(語尾 ‘어’는 補充이다.).

6. 兩手集刀花乎白良

‘兩手’에 대하여는 ‘두 손’과 ‘두블 손’의 두 類型의 解讀이 있으나, ‘二’, ‘二尸’의 表記를 ‘두블’로 할 때 ‘兩’을 ‘두’로 읽는 것은 自然스러운 일이라고 본다. 前章에서 數詞 ‘一’의 경우 名詞形과 冠形詞形이 다같이 ‘一等’이었음을 確認한 일이 있지만, 그렇다고 ‘二’를 비롯한 다른 모든 數詞에 있어서도 名詞形과 冠形詞形의 區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論理는 成立되지 않는다.

‘集刀花乎白良’에 대하여는 小倉進平의 ‘모도와솔바’에 비롯하여 梁柱東의 ‘모도호솔바’에서 改良을 본 ‘모도호솔바’의 흐름에 있어 왔으나, 金善琪와 金俊榮에게서 ‘花乎’를 別個의 語幹으로 보아 ‘골고’, ‘고조’까지의 發展을 본 것은 반가운 일이었다. 前章에서 筆者는 ‘膝脢 古召旅’의 ‘古召旅’가 ‘고조며’의 表記일 수 없음을 말한 바 있었지만, 같은 語詞를 여기 다른 모습의 義訓借 表記로 回復하는 것이다. 但, ‘花乎’가 ‘고조’나 ‘고초’냐는 ‘乎’의 音讀 全般에 관한 問題로 좀더 研究되어야 할 課題다. 從來의 解讀 ‘모도호솔바’는 ‘花乎’를 합쳐서 ‘호’라 읽는 論理와 함께 形態論의으로도 받아 들이기 어려운 ‘모도호’라는 語幹을 前提하는 奇異한 解讀이었던 것이다. 中世語에서 우리가 보는 ‘集’의 뜻의 語幹으로는 ‘물-’과 그 使役形으로서의 ‘모도-’, 그리고 거기 경쟁되는 ‘외호-~모호-’가 存在하였을 뿐, 无厓가 생각했던 ‘모도호’라는 形態는 現代에 이르기까지 存在한 일이 없는 것이다.

7. 願往生願往生

句全體가 解讀의 對象에서는 벗어나는 것이지만, 鄉歌의 韻律을 論할 때에는 가장 信賴할 수 있는 基準이 된다. 筆者에게 있어 ‘三句六名’이란, 1, 3, 7의 세 句가 6音節로 되어 있음을 말한 인데⁽¹²⁾, 願往生歌의 第七句도 바로 이런 秩序를 反映하는 例가 된다.

(12) 慕竹旨郎歌의 解讀은 拙稿(1979b)를 參照

(13) 拙稿(1977a)의 所論

8. 慕人有如白遭賜立

‘慕人’은 前行의 ‘願往生願往生’을 이어받아야 하므로 漢字語로 보기(池憲英의 見解)는 어렵겠고, 末音添記가 極端의 省略된 例라 하겠는데, 지금까지의 見解로는 小倉進平에서 梁柱東을 거쳐 내려 오는 ‘그릴’과 그에 對立되는 金善琪의 ‘그리논’이 있다. 現代語的 感覺에서 말한다면 後者가 더 어울리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牧童’을 ‘쇼칠 아히’라 할 수 있었던 中世 以前의 言語 秩序에서는 ‘-을’이 未來만이 아니라 慣習化된 行動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므로, ‘그릴’로도 無妨하지 않을까 한다. 오히려 ‘그리논’은 ‘慕(理)內乎隱’으로서 ‘慕(理)尸’의 경우보다 省略의 可能性이 稀薄하여 보인다. 오히려 筆者는 그 밑에 있는 ‘人’字를 ‘사람’으로 解讀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뜻하는 依存名詞 ‘이’로 보아 ‘그릴이’ 即 ‘그리리’의 表記였겠다고 推測한다. ‘有如’에는 ‘있다’ 以外의 意見이 있을 수 없고, ‘白遭賜立’은 이미 앞에서 보았던 表現이다.

9. 阿邪 此身遺也置遣

‘阿邪’는 ‘아야’. 그러나 ‘此身’은 ‘이 몸’이 아닌 ‘이 모마’라야 한다. ‘몸’의 古代語形이 ‘모마’라야 함은 ‘身萬隱’의 表記에서 確認되는 것이나, 이 名詞는 모든 位置에서 固定的으로 ‘모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身靡只’과 같은 경우에는 ‘몸’이라는 異形態를 보였다.

여기의 ‘이 몸’은 자기자신을 가리키는 代名詞的 用例다. ‘기터 두고=遺也置古’는 ‘남겨 두고’, ‘除外해 두고’의 뜻이니, 阿彌陀佛의 發願에서 正法을 毀損한 者와 五惡을 저지른 者를 除外하고는 모든 사람을 往生케 할 것이 誓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몸’도 거기에서 除外되지 않기를 祈求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梁柱東에 비롯되는 ‘기터 두고’ 以下 다음의 第十句까지의 解讀은 正鵠을 얻고 있는 것이요, 金善琪가 假定한 것과 같은 ‘遺也→遣也’, ‘白遭賜去→白遭賜立’와 같은 文面 修正은 不必要한 것이다.

10. 四十八大願成遣賜去

7.8句에서 본 바와 같이 달이 阿彌陀佛께 ‘이 몸’에 관한 報告를 하여 주면, 阿彌陀佛이 四十八大願을 成就하시는 날 나를 빼놓으실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뜻이다. ‘成遣賜去’의 ‘遣’는 中世에 ‘일오-’의 ‘오’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 ‘고’로 表記되어 있는 것이 注目된다. ‘賜’ 아래에서는 ‘尸’의 省略이 보이니, 이 노래의 表記는 相當히 粗略한 性向의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또 하나의 例가 된다.

IV

以上 두 章에 걸쳐 論議해 온 것을 整理하여 禱千手觀音歌와 願往生歌에 대한 筆者의 解讀과 理解 內容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禱千手觀音歌

解 讀 :

무릎 나조며
 두볼 손뼉롬 모도나라
 千手觀音人 알파히
 비리슬볼 두노오다
 즘은 손人 즘은 누늘
 苦든헛 노하 苦든놀 더럭
 두볼 마만 내라
 苦든와 숨기주시서 느리느웃드야
 아야여 나라고 아릅실든
 어드레 쓰을 慈悲여 큰고

通 解 :

무릎을 낮추며
 두 손바닥 모아
 千手觀音 앞에
 祈求의 말씀 두노라
 千개의 손, 千개의 눈을
 하나를 놓아 하나를 멀어서
 두 눈을 감은 나라고 하여
 하나를 숨겨 주시오 하고 매달리누나
 아아, 나라고 알아 주실 것 같으면
 그 큰 慈悲는 어디에 쓰실 것인가요.

願往生歌

解 讀 :

드라리 잇더역
 西方서장 가시리꼬
 無量壽佛前에
 又금 함죽 슬고시서
 다덤 기프신 므르웃 비라울워러
 두 손 모도고초슬바

願往生願往生

그리리 있다 솟고시서

아아 이 몸 기터 두고

四十八大願 일고실가

通 解 :

달이 어찌서 西方까지 가지겠습니까(阿彌陀佛께 이 세상 일들을 報告 드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無量壽佛前에

報告의 말씀 빠짐 없이 사뢰십시오

誓願 기쁘신 부처님을 우러러 바라보며

두 손을 모아 곧추서어

願往生願往生하고

항시 빌고 있는 이가 있다는 것도(빠뜨리지 말고) 사뢰십시오.

아아, 이 몸 때 놓고

四十八大願을 이루실까

以上の 결과를 얻기까지에 있어, 筆者는 表記의 客觀的 基準들을 重視하는 동시에 文脈으로부터의 逸脫을 경계하였거니와, 解讀에 있어 先輩의 功勞에 돌아갈 部分과 筆者 自身の 責任에 속하는 部分을 識別하는 데 努力하였다. 우리 學問의 다른 分野에서와는 달리, 解讀 내지 注釋의 分野에 있어서는 自他の 功勞와 責任을 分明히 하지 않는 弊風이 짙게 흘러 내려움을 개탄하는 筆者의 衷情이 거기 숨어 있다.

筆者의 解讀은 從來의 解讀들과 比較할 때 많은 變改를 보였으리라고 믿거니와, 그 가운데에는 末端的인 것이 아니라 根本的인 再檢討의 結果를 나타내는 것도 꽤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筆者는 그 成果를 自矜한다기 보다는 所任의 遂行이 매우 늦었다는 自愧에 젓는다. 筆者의 作業의 大部分이 最近의 成果들에 대한 批判을 내용으로 한다기보다는 近四十年前의 無涯의 業積에 대한 反省을 주로 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이다. 筆者가 年前의 다른 拙稿(1975: 169—170)에서 表明했던 感懷를 여기 다시 옮겨 놓으며 끝을 맺는다.

一旦 文字化된 所說은 특히 그것이 開拓的 貢獻으로 尊敬받는 元老級 先輩의 意見일 때, 그 에 包含된 論理의 矛盾 乃至는 不實에도 不拘하고, 後人의 思考에 神話처럼 君臨해 오는 일이 종종 있다. 물론 한 學說에 대한 責任은 그에 隨伴된 榮譽과 함께 그 最初의 發說者에게 돌아가는 것이기는 하지만, 論理의 矛盾을 內包한 한 所說이 修正됨이 없이 長期間 放置된거나 또는 甚至於 無批判的으로 墨字되고 論著들에서 그런 言說이 되풀이된다면, 先輩의 功業을 오히려 繼承·發展시키지 못하고 停滯시켰다는 點에서 우리 後學들이 스스로 苛責받을 바가 더 크다고 본다. (拙稿, 1975. 文學作品의 解釋과 文法, 學術院 論文集 14)

參 考 論 著

- 金善琪：1967~1969. 향가의 새로운 풀이, 現代文學 145 이하, 14회 연재(三國遺事分)
- 金完鎭：1973. 國語 語彙 磨滅의 研究, 震檀學報 35.
- 1977a. 三句六名에 대한 한 假說, 李崇寧先生 古稀記念 國語國文學論集
- 1977b. 鄉歌의 語學的 研究의 基準, 言語外 言語學 5.
1978. 鄉歌 原文의 訂誤를 爲하여, 冠岳語文 3 (=全光鏞博士 華甲紀念論叢)
- 1979a. 鄉歌 解讀의 實際, 國語學 9.
- 1979b. 慕竹旨郎歌 解讀의 考究, 震檀學報 48.
- 金俊榮：1979. 鄉歌文學
- 徐在克：1974. 新羅鄉歌의 語彙研究
- 小倉進平：1929. 鄉歌 및 吏讀의 研究
- 安秉禧：1965. 後期 中世國語의 疑問法에 대하여, 學術誌(建國大學校) 6.
- 李基文：1973. 國語音韻史研究
- 李崇寧：1955. 新羅時代의 表記法體系에 관한 研究, 서울大學校 論文集 2.
1956.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東方學志 2.
- 梁柱東：1942. 朝鮮古歌研究
1965. 增訂 古歌研究
- 池憲英：1948. 鄉歌麗謠新釋